

자본주의는시장경제가아니다

이안맥케이

이안맥케이
자본주의는시장경제가아니다
2009 년 04 월 19 일

영어원문이 기재됐던 원래 사이트 접속 권한이 변경돼, 아카이브 링크만 기재함.

kr.theanarchistlibrary.org

2009 년 04 월 19 일

먼저 좋은 소식부터! AK Press 에서제가제안한 『피에르-조제프프루동선집 (A Pierre-Joseph Proudhon Reader)』을출간하기로했습니다. 그러니프루동의 2010 년선집을읽고싶으시다면꼭연락주세요. 단순히개인적으로좋아하는프루동의글을추천하기위해서라도 좋습니다. 혹시프랑스어원문을번역하는데흥미가있으시다면알려주시길바랍니다. 예를들어, 프루동이 1848 년혁명을두고쓴글은꼭영어로번역할가치가있습니다. 연락처는위에첨부한프루동블로그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두번째로, Radical Routes 의 21 주년기념회의에서아나키즘경제학발표를해달라는요청을받았습니다. Radical Routes 는주택협동조합과노동자협동조합과사회복지당사이연합체입니다. 회의주제는“실질적경제학: 실패한경제체제의급진대안”이며, 5 월 23 일런던의콘웨이홀 (Conway Hall) 레드라이언스퀘어에서열립니다. 제블로그의독자라면아시겠지만, 저는협동조합형성이, 특히노동자가자신의일터를점거하고사장을내쫓고일터를변화하는것이오늘날경제위기의실질적인해결책이라고꾸준히강조해왔습니다.

마침제가지금 『An Anarchist FAQ』 (AFAQ) 의제 1 장을교열하고있는중이라, 아나키즘사회의경제학개요를발표해달라는요청에더욱집중할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몇달동안아나키즘경제학이라는주제를고민했기때문에, 좋은발표를할준비가됐다고생각합니다. 물론우리가구상하는자유로운사회는우리가현재체제에서혐오하는바와밀접히관련되어있으므로, 아나키스트의자본주의비판도간략히설명해합니다.

논의는자연히프루동으로이어집니다. 가장“명백한”아나키즘적경제형태, 즉시장에서운영하는협동조합과농공업연방 (agro-industrial federation) 과공동체연합과상호은행으로구성된상호주의 (mutualist) 경제부터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집산주의적아나키즘을거쳐, 농공업연방과코뮌연합이보완하고생산단위간수평연결망을바탕으로한탈중앙화된경제체제로서코뮌주의적아나키즘을다루겠습니다. 폰하이에크 von Hayek 와폰미제스 von Mises 등인물이중앙집권적계획경제는실패하리라고주장했다는이유로찬사를받는모습은기묘합니다. 바쿠닌과크로포트킨이계획경제는지역지식을무시하고사회의다양한필요를고려하지못하기때문에실패하리라고폰하이에크와미제스보다수십년전에주장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본론에서다소벗어난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상호주의가사회주의일까요? 물론입니다! AFAQ 의 G.1.1 절에서언급했듯이, 마르크스, 엥겔스, 바쿠닌, 크로포트킨은모두프루동을사회주의자로인정했습니다. 그리고 G.1.2 절에서언급했듯이, 재산 (property) 과점유 (possession), 혹은마르크스주의용어로말하면재산과자본 (capital) 사이에는차이가있습니다. 여기마르크스와엥겔스의관련된인용문몇가지를제시합니다:

아나키스트라고부르지않았다”는것입니다. 아마도개인주의아나키스트를포함한“모든아나키스트조직”이“공통적으로사회주의적경제교리를공유했기때문”입니다.

누군가로스바드의글을위키피디아의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항목에서인용한것을봤습니다. 물론재산주의자 (propertarians) 에게서기대할수있는수준의정확성이었지만말입니다! 그래도이제위키피디아항목에‘자유지상주의자 (libertarian)’이라는용어를처음에는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가사용했음을인정하고있습니다! 일종의진전이라고해야할까요 ...

제가다시블로그에글을올릴때까지, 또뵈겠습니다!

시장기반사회주의는자본주의가아니라는말입니다. 애초에시장자체가자본주의보다수천년이나앞서존재했습니다. 저는여전히아나키즘적코원주의자이며, 기본적으로말라테스타 (Malatesta) 의입장에동의합니다. (참고로저는말라테스타의열렬한팬입니다. 말라테스타의글을읽어보지않았다면꼭읽어보시길권합니다!) 시장은비 (非) 자본주의적형태라하더라도여전히문제를안고있으며, 시장의문제때문에대부분의아나키스트가코원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프루동도이런문제를어느정도인식하고있었음인정해야공평합니다. 프루동이말하길, “연방의원리가기본논리에서아무리흠잡을데없다하더라도 … 연맹을계속해서와해시키는경제적요인이있다면살아남을수없으리라. 다시말해, 정치적권리는경제적권리로뒤흔쳐져야한다.”나아가, “경제의맥락에서연합은상업과산업에서상호안전을제공하도록안할수있다 … 이러한구체적인연방은시민을자본가와금융착취로부터보호를목적으로삼는다 … 이연방의집합체는‘농공업연방’이다.”[The Principle of Federation, p. 67, 70]

마지막으로, 머리로스바드 (Murray Rothbard) 가 1950 년대에쓰고출판하지않은글을찾았는데, 글에서로스바드는자신의사상, ‘아나코’자본주의가아나키즘의종류로간주할수없다고결론지었습니다! 로스바드의결론은거의모든아나키스트가‘아나코’자본주의를접할때내리는결론과동일합니다. 로스바드글을 AFAQ 블로그에다뤄게시할계획이지만, 당분간은 2010 년에출간할예정인 AFAQ 제 2 권서문에서발췌한내용을여기에단독으로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1 권에서는왜‘아나코’자본주의가아나키즘의한형태가아닌지를설명했는데, 아나키즘은근본적으로자유지상주의적사회주의이론이자운동이기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나코’자본주의의창시자머리로스바드가 1950 년대에쓰고안타깝게도출판하지않은글이최근발견되었는데, 로스바드의글역시같은결론에도달했습니다. 아나키스트가자유지상주의자 libertarian 라는용어를사용한역사를고려하면다소부정확한제목인 「자유지상주의자는‘아나키스트’인가?Are Libertarians ‘Anarchists’?」 라는제목의글입니다. 아나키즘을왜곡하는오류와날조를제치더라도, 로스바드의글은다음올바른결론에도달했습니다. “따라서우리는아나키스트가아니며, 우리를아나키스트라고부르는사람은확고한어원적근거가없으며, 완전히비역사적이다.”로스바드의결론은크로포트킨이나바쿠닌같은“주류아나키스트”뿐만아니라로스바드가“아나키스트중최고”라고여긴개인주의아나키스트터커에게도해당했습니다. 왜냐하면크로포트킨, 바쿠닌, 터커모두자기사상속에‘사회주의적요소’를포함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로스바드가보기에, “자유주의의황금기 (Golden Age of liberalism)”속에자신의사상과“유사한”생각을가진사상가가있었지만, 이들은“결코자신을

”[자본] 존재의역사적조건은단순히화폐와상품의유통만으로주어지지않는다. 생산과생활의수단을소유한자가시장에서자신의노동을판매하는자유로운노동자를발견할때에만발생한다.” (Marx, 『Capital, vol. 1, p. 264

” 정치경제학은원칙적으로두가지매우다른종류의사유재산을혼동하는데, 하나는생산자자신의노동에기반하고다른하나는타인의노동을착취하는데기반한다. 정치경제학은후자가전자의직접적인대립일뿐만아니라전자의무덤을덮고서만성장한다는사실을망각한다 … 자본주의체제는끊임없이생산자가가로놓는장애물에부딪힌다. 생산자는자신의노동조건소유자로서, 자본가가아닌자신을풍요롭게하기위해노동한다. 두상반되는경제체제의모순은자본가와생산자사이의투쟁속에서실체있게드러난다.”(ibid., p. 931)

” 생산과생활의수단은생산자의소유로남아있는한자본이아니다. 두수단이동시에노동자착취와지배의수단으로기능하는상황에서만자본이된다.”(ibid., p. 938)

” 노동자가각자의생산수단을소유하고서로의상품을교환한다고가정하자. 이경우상품은자본의산물이아니다.” (ibid. vol. 3, p. 276)

“생산의목적, 즉상품을생산하는일자체가생산도구를 자본으로바꾸지는않는다 … 상품생산은자본존재의전제조건중하나일뿐이다 … 생산자가단지자신이자신의생산품을판매하는한그는자본가가아니다. 생산자가자기도구를사용해타인의임금노동을착취하는순간야비로소자본가가된다.”(Engels, Marx-Engels 『Collected Works』 , pp. 179-80)

프루동의분석과의유사성은분명합니다. 사실엥겔스와마르크스는프루동의재산 (property) 과점유 (possession) 의구분을반복했을뿐입니다. 물론구분을다소좁혀생산수단에만집중했습니다. 따라서프루동의눈에는재산이지만마르크스의눈에는자본이아닌임대주택등은제외했습니다. 아마놀랍지않지만, 마르크스와엥겔스는자기생각과프루동의생각사이유사성을종종무시하는경향이있었습니다. 아마프루동을경쟁자로여겼고, 난처하게도프루동이착취는작업장에서비롯하며자본주의는조합에기반한사회주의사회로대체되리라는등의공통된주장을먼저펼쳤기때문입니다.

프루동은상호성을두고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 “어느산업분야의모든노동자가자신을고용해임금을주고생산물을차지하는 기업을위해일하는대신, 서로를위해일하며공동생산물의이익을함께나누며협력할때상호성은드러난다. 이러한상호성의원리를확장해각집단의노동을하나의단위로서의노동자협동조

함에 귀속한다면, 정치경제미학등 모든 관점에서 이전의 문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창조하게 된다.” [Martin Buber, 『Paths in Utopia』, pp. 29-30]

상호주의 (mutualism) 는 자주관리 (self-management) 와 자유로운 생산수단으로의 접근 (사회화) 을 통해 임금노동을 제거하기 때문에, 시장과 가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호주의는 코뮌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항상 코뮌주의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코뮌주의 내에서도 입장차이는 존재합니다. 자유지상주의적 코뮌주의 (libertarian communism) 는 사회민주주의와 근본에서 다릅니다. 차이는 코뮌주의를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접근, 즉 개인의 자유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시장의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고 생산수단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앙계획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르크스주의에는 양측 요소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코뮌의 협동조합에 기반한 사회주의적 미래상에 프루동이 끼친 영향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누락입니다. 프루동의 영향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프루동의 실제 사상은 원초상당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집 출간이 시급한 것입니다! 둘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루동 사상의 명백한 연관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종종 프루동의 사상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AFAQ 의 H.3.14 절을 인용하자면,

더욱이, 파리노동자의 목표는 『공산당선언』 과는 어긋났고 아나키즘과 일치했다. 가장 분명하게도, 임금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노동자 협동조합 요구와 『연방의원리』 에서 제기된 농업연방 모두 프루동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파리코뮌의 협동조합적 생산구상은 프루동이 명확히 “산업민주주의”라 부른, “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할 아래 산업을 재조직하는 것”의 명백한 실천이었다. [K. Steven Vincent 의 인용문, 『Pierre-Joseph Proudhon and the Rise of French Republican Socialism』, p. 225]

파리코뮌 당시 노동자 계급이 위자유지상주의적 이상을 실천했을 때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시도를 지지했으며, 코뮌을 계기로 자신의 사상을 신속히 수정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엥겔스의 역사 수정주의로 다소 가려졌습니다. 1891년 마르크스의 『프랑스내전 The Civil War in France』 서문에서 엥겔스는 프루동이 대규모 산업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에 반대했다고 묘사하며, “모든 협동조합의 큰 단일 연합으로 결합”은 “프루동학설과 정반대”이므로 “파리코뮌은 프루동학설의 무덤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Selected Works』, p. 256]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 협동조합 결성과 조합간 연맹은 프루동 사상의 핵심이었고, 따라서 파리코뮌 참여자는 분명 프루동의 이상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자칭 반대자와 특히 레닌주의자가 자본주의의 옹호자와 함께 자본주의가 시장과 동일하다거나 자본주의는 시장과 반대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은 모순적입니다. 별로 마르크스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데이비드 슈바이카르트 (David Schweickart) 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시장에 맞춰진 초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시장의 동일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 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와 대부분의 반좌파 모두가 범하는 해로운 오류이다 ... 자본주의의 주요 옹호자의 저작을 살펴보면, ... 그들의 논리는 항상 시장의 미덕과 중앙집권적 계획의 결함에 집중되어 있다. 시장을 변론하기가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다른 두 체제를 변론하기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효과적 인 전략이다. 자본주의의 옹호자는 임금노동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부터 시선을 돌려 시장에 주의의 집중시키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Market Socialism: A Defense”, pp. 7-22, 『Market Socialism: the debate among socialists』, Bertell Ollman (ed.), p. 11]

슈바이카르트 (Schweickart) 가 자신의 제시한 유사체제를 “시장사회주의 (market socialism)”라고 불렀듯이, 이러한 시장협동조합체제를 “시장아나키즘 (market anarchism)”이라고 부르려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에 넘어가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아나키즘’이라는 용어는 ‘아나코’ 자본주의자가 자신의 사상을 새롭게 포장하고자 이미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산주의자 (propertarians) 는 “시장아나키즘”이 “1849년 벨기에 경제학자 귀스타브 몰리나리 (Gustave de Molinari) 에 의해 시작”됐으며, 시장아나키즘이 “아나코” 자본주의”보다 “논쟁이 덜한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Roderick T. Long, Tibor R. Machan, “Preface”, Anarchism/minarchism, p. vii] 롱 (Long) 은 몰리나리가 “시장아나키즘의 창시자”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Market Anarchism as Constitutionalism”, pp. 133-151, Op. Cit., p. 141] 그러나 결정적으로, 몰리나리는 결코 자신을 아나키스트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나키즘적 운동에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즉, 몰리나리를 어느 아나키즘적 학파의 ‘창시자’라 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롱이 했듯 몰리나리와 터커 (Tucker) 를 동일시한다면 두 사람이 각자 주장한 재산권 (property) 사이 상당한 차이점을 무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터커는 상당부분 프루동과의 견이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프루동이 그랬듯이, ‘시장아나키즘’을 대신 상호주의 (mutualism) 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라고 부르면 재산주의 우파가 용어를 빼앗아가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해두자면, 저는 자주 관리협동조합 시장에 기반한 자유지상적 사회주의 개념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장은 자본주의와 동일하지 않듯이,